

**금추일언** 어리석은 사람은 죽이기를 좋아하며 말에 성실함이 없고 주지 않는데도 취하며 남의 부인 법하기를 좋아하고 제마음대로 계을 받으며 술에 미혹되나니 이런 사람은 세세토록 스스로 제몸의 뿌리를 만다  
(법구경·진구품 364절)

# 東大新聞

구분: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구독료: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5 (☎22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0-257)

제 1182 호 (주간) 199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 (불기 2539년) 9월 25일 (월요일) 11

## 특례입학 등 내년 입시 일부 확정 농어촌학생 정원외 특별전형도 논의

'96학년도 산업체·특기자 특별전형 및 농어촌 학생 정원의 특별전형·예체능계 배정 및 실기고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난 22일 열린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됐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교포학생 정원의 특례 신·편입학안이 일부 확정됐다.

외국인, 교포학생 정원의 특례신·편입학의 확정내용을 살펴보면 특례입학 96명(서울 57명, 경주 39명), 특례편입학 2·3학년 약간명이고 일정은 △서류심사=오는 11월 13~17일 △면접교부 및 접수=오는 11월 27~12월 1일 △면접·필답고사=오는 12월 7일이다.

시험과목은 특례신입학의 경우 △인문계·자연계=국어, 면접 △의과계=국어, 수학Ⅱ, 면접 △예체능계=국어, 실기, 면접이고 특례편입

## '5·18' 2차 결의대회 동맹휴업 총투표·전면 과토 등 결의



◇'확실자 처벌을 위한 동맹휴업 결의대회'가 지난 21일 도서관앞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다.

'5·18확실자 처벌'문제가 본교 및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날 31일에 열린 '5·18확실자 처벌과 확실자 비호 김영삼 규탄을 위한 1만동학 결의대회'에 이어 '확실자 처벌을 위한 동맹휴업 결의대회'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 주최로 지난 2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29일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 전면 과토 등을 결의했다.

'확실자 비호, 폭력탄압 자행하는 김영삼 정권 규탄'발언에서 문과대 학생회장 좌수일(국문4)은 "지난 8월 16일 단국대학우가 실명하는 것에 이어 5·18과총소 파궤투쟁과 관련 경향이 학원내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등 김영삼의 폭력탄압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특별전담반'을 구성, 5·18과총소 파궤 투쟁 참가 학생들을 검거하고 있다"며 "도대체 80년대 군부독재와 다른 것이 뭐 있나"며 격분했다.

또 특별법, 특검제 정치결의 발의를 통해 법대학생회장 나상원(법4)은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5·18과 같은 범죄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장 안진우군은 "저급의 우리사회의 모습은 일제시대

## 보리수 자제력(自制力)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말하기를 계절적으로 봄이나 가을이 오면 많은 젊은이들은 가슴이 설레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봄에는 주로 처녀들이 마음이 들뜨고, 가을에는 총각들이 들뜨기 때문에 이를 일러서 "봄 처녀, 가을 총각"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에 열심인 사람은 한시도 한눈을 팔 사이가 없으며,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괜히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부 성인들이 주장하는 인생 담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들뜬 경우에는 그러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마음이 무겁거나 우울하면 첫째로 할 것은 우선 그 감정을 냉정히 판단하여 보람된 일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다. 둘째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참되고 올바른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성취하여 마음 속에 기쁨을 간직하면, 마치 어두운 방에 불빛이 비치는 측시에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만이 있듯이 우울한 감정도 감쪽 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마음이 괜히 들떠 있으면 이 때에는 첫째로 바깥 대상에 대한 자기 감정이 상대적인 관념에 치우쳐서 "좋다"는 생각이나 "나쁘다"는 생각 등이 너무 격렬하여 집착심이 강할 경우에 많이 일어나므로 될 수 있으면 자제하여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로는 과감하게 그릇된 견해나 쓸데 없는 망상 등은 죽은 나뭇 가지를 잘라내듯이 버려서 좋은 생각만이 나도록 병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하든간에 자기가 쌓은 지식 만큼 반드시 그에 따른 실천 즉 수행을 할 때에 이는 마차의 양쪽 바퀴 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 괜히 우울하거나 쓸데 없이 들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수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 틀을 들고 있지만 대개는 참선(參禪)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매(三昧)나 오가(瑜伽), 염불(念佛), 간경(看經), 사경(寫經) 등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곧 자제력(自制力)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자제력이 없거나 약하면 아름다운 사람도 오래 갈 수 없으며, 마음은 항상 우울하거나 들떠 있어서 번민만이 자기의 주위를 맴돌 것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오면 천리 길을 달리기 위하여 말들을 살찌운다고 한다. 우리도 이번 가을에는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갈등 없이 자제하여 자기를 살찌우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이 만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 종관위, 이사 후보 1명 교체 총회 이사후보 동의안건 연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설조)는 본교 재단이사에 추천된 후보10명중 방지하스님이 이사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지난 19일 임시종립학교위원회의를 열어 서벽 파스님을 추천했다.

한편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조계종 제118회 총회는 종무보고, 각

상임분과위 및 각종위원회 업무 보고보고건안 통과된채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28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총회에서 재단이사후보 동의안이 논의된다. 앞으로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중 5명의 이사가 확정된다.

## 동국발전기금으로 4천만원 일본 전산전문학교 기부금 전달



동국학원의 일본 자매결연교인 동북전자계산전문학교에서 보내온 동국발전기금 기증식이 지난 22일 이사장실에서 있었다.

동북전자계산전문학교는 86년 본교전자계산학과 교류협정을 체결

## 총동창회 장학금 지급 서울캠 8명·경주캠 4명

총동창회(회장=황명수·총동창회장, 국회의원)는 총동창회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은 서울캠퍼스 8명, 경주캠퍼스가 4명으로 총1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이동학(화 3), 이상훈(정의 30), 이재경(경제 2), 이성미(국교 20), 장재명(미술 2), 박현식(일반대학원 전기공학 석사과정), 서창훈(일반대학원 정치외교 석사과정) 정연도(경영대학원 경영정보 석사과정), 경주캠퍼스 문은경(국사 3) 정학숙(생물 3) 노정현(행정 2) 김정택(법 4)이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총동창회 부회장 유주형씨 및 구자선, 안재관, 동우장학회 이사 박수현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자선 부회장은 장학금을 수여한 후 "앞으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도 동국을 빛낼 훌륭한 일꾼이 되어달라"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  
교수동정

## 제37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여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③ 모집분야: 취재·문화·사건기자  
 ④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⑤ 원서접수: 9월 28일(목) 오후 5시  
 ⑥ 시험일자: 1차 9월 28일(목) 오후 6시  
 2차 9월 29일(금) 오후 6시  
 ⑦ 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문화·사건지원자는 실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 시험장소: 학원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개교90주년기념 기획광고 1 1986~1996

# 90세 청년 - 동국을 보여주자

개교 90주년 기념 엠블렘 및 표어 현상 공모

2006, 개교 100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90살 청년 동국을 보여주는 표어와 엠블렘을 공모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 21세기를 향한 발전의지 등을 가득 담아 응모해 주십시오.  
 당선작은 개교 90주년 공식 엠블렘과 표어로 사용됩니다.  
 1995년 9월 25일  
 개교90주년기념행사집행위원회

응모대상	엠블렘	표어
90년 역사를 함축하고 미래동국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원색 상징 도안	A4 사이즈의 화판에 4원색 이내로 직접 도안 또는 컴퓨터그래픽 출력물로 제출	· 9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 · 21세기(또는 개교 100주년)를 향한 동국발전의 의지를 담은 내용 ·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을 함축한 내용
1995. 10. 20(금) 17:00까지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할 수 있음)	1995. 10. 13(금) 17:00까지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할 수 있음)	
당선작(1작품): 10만원 가작(2작품): 30만원	당선작(1작품) 50만원 가작(2작품): 20만원	
동대신문사(학생회관), 개교90주년기념사업본부(분관4층)	개교90주년기념행사집행위원회에서 별도위촉	
1995년 11월중 동대신문에 발표, 시상식은 발표시에 공고함		

※문의: 260-3792~4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DU 10번게시판이나 ID: dg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 '물물교환 게시판 설치 제안'을 읽고 학교측, 게시용지 제작 배부 예정

우리대학 실정에 적합하고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게시문화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난호(제 1181호)에 게재된 '물물교환게시판 설치제안'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이 글을 쓴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학기애 접어들어 동국의 교정은 조경공사내 시설개보수 공사로 분주하며, 동문회 모임, 동아리화원모집, 특강안내, 공연 및 학술제 안내 등의 각종 포스터와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게시판은 개인과 단체의 의견과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고 교환하는 공용의 열린 공간이며 안내와 홍보를 위한 알람의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담은 게시판을 구성원의 관심과 대상이 되며 교류의 자유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게시문화 모습은 어떠한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교정의 곳곳을 돌아보지만, 게시물의 크기를 과대하게 하고, 연속적으로 여러장을 중복되게 게시하며, 시일이 지남에도 제거하지 않아 휴지처럼 방치된 게시물,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벽면과 바닥, 계단, 심지어 화장실에 까지, 눈에 띄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교정의 환경정리와 다른 학생에 대한 고려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홍보만을 위해 게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 여러학생 단체가 더욱이 허가받지 않은 외부 홍보물까지도 경쟁적으로 게시하게 되면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탐색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적정 규모의 용지에 알맞고자 하는 내용과 정보를 창의적이고 함축적으로 정리하여 게시한다면 많은 학생의 시선과 관심을 모으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김영춘 학생의 제안처럼, 학교에서도 습득물과 분실물의 안내, 생활물품의 교환과 구입, 판매 등을 위한 물물교환게시판을 설치하여 학생에게 건전한 소비유형을 유도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게시용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류 변 성 (학생처 학생과)

## 불교개혁 지속돼야

전 사부대중의 불교개혁과 불교자주의 열망에 의하여 출범한 개혁종단도 어느덧 일년이 지났다. 처음 개혁종단이 출범할 때 우리네들의 가슴에는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역사의 안타까운 흐름을 변화시켜 청정·평등·화합을 바탕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리라는 굳은 믿음과 종단에 대한 신뢰를 가득 안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회의는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승가 본연의 정신마저 부정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월주 총무원장 또한 권한 분산과 자과세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다양한 계파 형성을 조려하였고 이리인해 계파 이기주의만이 민연한 종단 형국을 창출해 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계파정치의 양상은 우선 출가자들이 성직자로서의 권위와 그 권위에 모순되는 경제력 장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형국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출가자 전체의 이해관계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계파에 관계없이 공동대처

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신도법 제정, 신도회 추진, 불교방송, 불교계 언론사 통합 추진, 전통사찰보존법 개악건 등에 대한 대응양태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의 활날을 법인 관리법 추진으로 일괄타결하려 하고 있다. 불교계내의 큰 돈줄이라 할 수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복지법인등 일체의 법인을 관리하며 산하 법인의 사업상의, 감사, 임원선임을 할 수 있는 법인관리위원회를 종회내에 동모르서 조계종의 주요기관 및 단체의 거의 전부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중앙종회의 가장 큰 사안인 이 법인과 리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것은 다름아닌 동국대학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하며 11월 경 이사선출을 앞둔 동국대로서는 이후 어떤 형국을 자아낼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대현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 계열별 모집, 결과적 학과 통폐합 유도 미국식 교육제도 탈피·동국학풍 고수해야 학문구조 재조정...구성원 의견수렴 필요

우리 동국대학이 '1급 보안'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소위 '계열별 신입생 모집' 방안을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등을 통해 실제화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학교당국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내외의 반발의 주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학문구조 재조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내외의 여론 수렴의 과정이 전무했다. 계열화 같은 사안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학내외의 의견수렴이 그 정책의 실패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무시했다.

또한 학교당국의 기본적인 학사행정집행이 문제다. 계열별 모집은 필연적으로 학과통폐합의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교육부나 학교당국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러나 학교당국은 지난 5월 학과통폐합 투쟁에서 학생들에게 이후에 학과통폐합 작업은 하지 않겠으며, 하더라도 최대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지면의 한계상 결론적으로 총학생회가 이 투쟁을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학문에서의 사대주의를 막아내려고 한다. 미국의 교육제도에 물들어 현실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국 땅에 끼워맞추려 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깨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90년 동국의 학풍을 지키려고 한다. 동국의 학풍을 고려하지 않고 교수의 학생들에게 경쟁력 강화만을 외치며 자율경쟁 체제로 내몰고 있는 학교당국의 인화무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셋째로 교수님들의 고유한 교수권과 학문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다. 계열화 반대를 이야기하면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여 매정해 버리려는 학교당국의 막무가내식 정책에서 교수님들의 입장을 강화해드리기 위함이며 자기소속학과가 없어도 부도 찾아 해매는 기아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상과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총학생회는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학사행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학교당국은 자신들만이 동국발전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것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국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최 용 배 (사범대 국교과·총학생회 학자위원장)

## 비엔날레, 광주원혼 한풀이 "역사와 시대의 과제 망각말자"

역사는 아이러니인가? 지금 전국 도처에서 5.18 특별법 제정추구를 위한 범국민적 행위가 확산되고 있고 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광주 빛고을에서는 비엔날레라는 축제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광주의 향정의 빛은 승화되어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곧 이 5.18에 대한 역사의 해석을 다시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는 광주 그 자체로서 혁명이고, 역사가기 때문이다.

역사를 망각하고 역사를 거스르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심판 할 것이요, 다음 역사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기록관중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질 못했다. 그것은 바로 기록관중의 과거 용서라는 허구적 포용의 구호에 가려져 말았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나라의 살림을 짜임새 있게 짜고,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말이다. 종교단체, 교수님, 학생이 걸거리로 다시 나와 역사의 바른 평가를 요구하는 함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에도 용서라는 허무맹랑한 단어로 포장하려 한다면 이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임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

흔히들 우리사회가 얼마나 많은 개혁을 이루었나, 또 얼마나 살기 좋아 졌느냐,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계화를 위해 온 국민이 죽을 각오를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무래도 좋다. 그렇지만 아픔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그 생채기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고통을 안고 있던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던 말인가?

비엔날레가 함참인 광주의 평은 한 축대는 원혼들의 한을 달래는 다음은 무엇인지 자명할 사실아닌가

이 한편의 한풀이 곳이 끝나면 다음은 무엇인지 자명할 사실아닌가

다시한번 당부 하건대 역사의 진리를 망각하지 말라. 그리고 아픈 역사의 회복을 위해 이번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윤 규 (이부대(경) 경영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재단기획, 동대발전의 열정 담겨

지난호 동대 신문(제1181호)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을 학내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1월말에 임기완료되는 이사장에 대한 선거와 이사선임에 대한 머릿기사부터 총학생회 2학기 학원 자주화투쟁의 중심내용(무분별한 행사행정에 대한 비판과 재단이사장 선거), 사실과 민평에서의 동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재단이사장 이사선임에 대한 올바른 상은 어떠한도 하는가를 미비하지만 엿볼 수 있었다. 또한 5면의 기획시리즈 "다시 한번 동국을 생각한다"에서의 동국의 설립과정과 이후의 동국모습에 대한 기사는 동국대의 앞날을 걱정하는 학내 주체들에게 동국에 대한 재인식을 심어주었고 많은 고민을 던져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 기획시리즈에서 더욱더 돋보이는 것은 민중의 운명을 걱정하는 선각자들에 의해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동국이 질곡과 퇴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역사적 과거로부터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동국인의 동국발전의 열정과 마음이 었다. 하지만 총림학교관리위원회가 재단이사장의 기준으로 내세운

"종단 중진급으로 종림학교에 대한 관심과 발전의지여부에 두었으면 특히 이번에는 교육경력자를 우대 추천"에 의해 복구 추천된 이사가 얼마만큼 재단이사 기여와 동국발전적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이나 성향을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추천된 인물중에는 현재 이사에 재임중인 인물로 있거나 과거에 비리가 많은 인물도 있는 것으로 학내 주체들에게 문제가 제기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전부터 학교당국에 의해 밀실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각단위 학생회의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계열별모집, 학과통폐합, 학부제등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의 도입과정, 문제점등 풍부한 내용을 실어 학우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동국대 현실상(교수부족, 강의실부족, 재정부족) 동국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면 민족동국대학건설은 '사상누각'처럼 요원하지 않을까?

유동선 (경상대 정보관리학과·본사 모니터)

## 동/문/칼/럼 상아탑과 세계화

얼마전 한 정부가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라는 말이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또 세계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 세계화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세계화란 간단히 말하면 선진화된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세계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어떤 이는 세계화를 3T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세계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아탑의 주체인 대학생과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첫째는 운송수단(TRANSPORTATION)이다.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무리 새로 운 운명이라도 운송수단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은 여러 수단을 통해 들어

온 선진화된 첨단과학이나 새로운 지식을 시간나는대로 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만 갇혀 있어 된다.

둘째는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이다.

우리는 다매체 다매체 시대를 통해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정보란 자국의 군사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요즈음 전파월경(Spill-over)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안방에서 동시 간대에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한 정보를 취사선택해 사화인이 되었을때 시형작용을 거치더라도 그 정보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책임이다.

셋째는 관광여행(TOURISM)이다.

우리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를 보는 눈을 기르자는 뜻이며 현재는 우리보다 나은 국가를 여행함으로써 세계인이 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런 차



원에서 해외연수나 해외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웅대한 꿈을 안은 젊은이들의 몫인 것이다. 후진국이라도 좋으니 되도록 많은 국가를 통해 좋은 점을 배우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 세계화는 21C의 주역인 상아탑의 주체인 대학생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화라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책임이다.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은 과감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처럼 "내가 대학생이었으면"하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 영 철 (KBS라디오 제작관리부·교육 85층)

### 목역골

결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연극배우님들, 병민이형! 죄송해요. - 고달픈 결석생

알립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동/악/광/장

### 온방골

다.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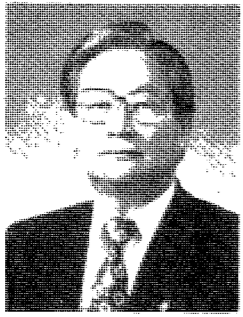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알립니다

#### 〈구내식당 식단표〉

다량관 식당		동국관 학생식당			
25(월)	최고기무국(1000)	복합김치볶음(1000)	25(월)	삼이찌개(900)	동국불고기(1000)
26(화)	순두부찌개(700)	족발(1500)	26(화)	장국밥(700)	함박스테이크(1500)
27(수)	소고기애박(900)	살림밥(1000)	27(수)	두부김치(900)	대구굴냉면(1000)
28(목)	참깨국밥(1000)	간동국(1500)	28(목)	닭고기애박(1000)	간짜장(1000)
29(금)	만두국(900)	후랑크류우밥(900)	29(금)	계양탕이떡볶(900)	최고기무국(1000)
30(토)	스타게타일밥(900)				



남 평 우  
국회의원·민자당

### 정기국회의 과제



장 영 달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 국민 갈등 해소의 장 돼야

오늘의 정치풍토에서 새로운 정치문화 열어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가 아닌가 싶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열리기까지는 갈등과 혼란의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낡은 시대로 가고 새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속에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낡은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에 이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명제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속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가 피감사기관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을 추궁하는 소모적 감사에 그쳤다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열린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모적인 폭로성 짙은 감사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자당은 민생현안과 현안여론을 바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중심의 감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내무부감사에서 지방자치, 공무원비리 등 파헤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신도시 관련 부실공사, 민생치안, 행정서비스를 시정토록하며 그린벨트, 농지, 산림훼손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며, 또 경찰청 감사에서는 지방재정반환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과 경찰승진제도, 경찰업무 환경 개선 및 사기양양 대책에 대해 촉구하고,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627지방선거 관련 선거부정사례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원봉사자 활용계획과 15대 총선준비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주민투표법, 공익자원봉사진흥법, 민간운동지원 육성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등에 역점을 두고 입법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치권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소를 해소시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을 사회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소를 해소하기 보다는 자꾸만 갈등요소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은 국민의 갈등요소를 해소하는데 맞춰져야 하고 소모적인 폭로성 짙은 감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정치불신 탈피의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이다. 따라서 지난 3년반 동안의 국회활동의 총결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국회는 97년 대통령선거까지의 정치역학을 결정짓는 15대 국회의원선거를 내다보면서 열린다는 점에서 4당간의 치열한 공방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질 것이다. 때문에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 우려도 높다.

여러 차례의 과정으로 열렸던 14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만은 달리달라져 뛰어 넘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비판'을 위한 비판의 자세를 지양하고, 정책대안의 책임 있는 제시를 통해 개혁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삼정부의 임기 전반부의 국정운영을 총검토하고 개혁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목표이다. 김영삼정부가 과거 권위주의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국정을 개혁했는지, 또 애초의 개혁모형이 변질되었거나 실효성 지점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국민복리의 증진과 국가발전성을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개혁과제를 분명히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검

사제 도입을 포함한 5·18특별법 제정, 전직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동화은행 등 각종 대형비리 의혹 추궁, PK중심의 인사정책 비판 및 인사문화 제도 도입,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의 산업구조 개편, 소득격차를 조정하는 현 세제의 개혁, 대북정책의 내각비판과 바람직한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마련,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지방경찰제 도입, 내무부의 자치부로의 개편 등 비경제부문의 정부조직 개편, 남북한 군사력의 정확한 비교·과약과 국방비 절감, 교육재정의 GNP 5%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언론·방송의 편파성 강화, URI이행 특별법 시행 및 농어촌생의 획기적 대책 촉구, 정부의 환경정책의 후퇴추궁, 임금이이드정책 철폐 및 노사 자율교섭 보장, 통합의료보험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수입식품 및 의료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 기존 대형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대책 촉구 등이다.

본인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이제 막 본격화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가 삼류정치와 정치불신을 어느 정도 타락을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사설

## '5·18'해결, 대화합 첫걸음

가을하늘이 더없이 높푸르다. 지난 여름 스쳐간 태풍과 홍수의 흔적이 아직 군데군데 남아있긴해도 결실의 계절답게 수확확비가 분주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상흔을 쓰다듬으면서 한과 분을 삭이고 있다.

왜 현정권은 5·18관련자 기소라는 당위성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가. 아무리 문민정부를 내세우고 개혁정치를 부르짖더라도 5·18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요란한 구호는 한낱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름대로 시한을 설정하고 시간을 끌다가 대뜸 불기소 처분이라는 무책임한 조치로 호도해버린 작태에 대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재야법조인, 교수, 학생, 종교인 등이 그 부담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현재 개최중인 국회에 야당측이 속속 특별법안들을 제출해놓고 있으며, 국민운동 차원에서 특별법 입법정권이 제출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도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격렬해지고 있다.

한총련은 5·18특별법제정, 특별검사제 도입과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을 오는 29일, 30일 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의 선전전, 서명운동, 리본달기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정권의 태생 자체가 5·18관련자들과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긴해도,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굴에 든다는 아합적 통찰의 변명을 그나마 믿고 싶은만큼 지금이라도 호랑이를 잡아 보라고 강권하지 않을 수 없다. 끝내 국민적 저항을 외면한다면 현정권은 드디어 5·18관련세력과 쌍생아로서 척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당국은 민심의 향방을 제대로 읽고 법치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 법과법외의 집단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민 대화합의 첫걸음은 5·18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연후에 화해의 방도를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현정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영영 저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한시바빠 불기소 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5·18에 관련된 재판 사안을 해결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이 이 사안을 두고 분노하고 저항함으로써 인해 초래되는 국력낭비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완강하게 5·18관련자를 계속 감싸 안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달릴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국민적 역량이 미려건설의 원동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불법과 민행을 속히 국민정서와 사법적 정의의 차원에서 청산하고 대동단결의 대의성을 과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로지 5·18관련자의 기소와 법적 처벌을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 학부제 바뀔까?

작년 7월 '학과통합'으로의 정책대 전환 추진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대학에 내려간 이후 '학부제·학군제·계열별 모집' 등 무수히 학과통폐합 논의가 진행되었고, 내년도 신입생모집요강에 '학부제'모집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학부모집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의 경우 92년부터 자연계열 유사학과를 학군으로 통합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자연과학대학부(수학·계산통계학과, 물리, 화학,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 지질학과, 대기과학과, 천문학과)로 3과 95명을 학과구분없이 모집한다.

이밖에도 공대 2개학부, 3개 학과군, 사대대 경제학부 등 모두 7곳이다.

연세대는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부, 공과대학을 기계·전자공학부로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연과학부(수, 물리, 화, 생물, 지질, 전파, 생화학)는 3과30명을 모집하고,

## ◇ 학부제 도입 타대 현황

### 자연계열 유사학과 통합등 점진적 시행

### 공청회등 여론수렴·구성원간 공감대 형성 필요

기계·전자공학부(기계, 기계설계, 산업시스템, 전기, 전자, 전파, 컴퓨터공학과)는 6백20명의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

고려대는 전기·전자·전파공학부(1백명), 재료·금속공학부(80명), 화공·시스템공학부(90명), 산업·시스템공학부(70명), 기계·항공공학부(1백50명) 등 5개학부가 신입생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경영·무역이 경영학과로 통합되기도 했다.

야간강좌와 사범대학이 개설되어 있어 비교적 유사한 상황에 있는 성균관대의 경우 각 단과대학을 몇

개의 학부로 재편성했다. 중앙학부, 인문학부, 어문학부,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생화학부, 자연과학부,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 화학·고분자 및 섬유공학부, 금속·재료공학부, 약학부, 생명자원공학부 등 주·야간 64개 학과를 19개 학부로 통합하여 학부단위로 모집한다. 특이한 점은 이과대학 소속이면 아동학과를 생활과학대로 소속을 변경해 가정관리, 의상학과와 같은 학부에 소속시켰고 야간강좌에 실학과는 주간 학부단위에 속해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법과, 사범, 체육대학이 통합추진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한동대가 전학생을 계열별 또는 학과 구분없이 성적순으로 모집하고, 아주대가 총6개 대학 중 7개학부, 5개계열, 31개 전공으로 모집하고, 인하대가 공과대학과 경상대학을 2개, 1개학부로 홍익대의 서강대가 일부대학에 학부제를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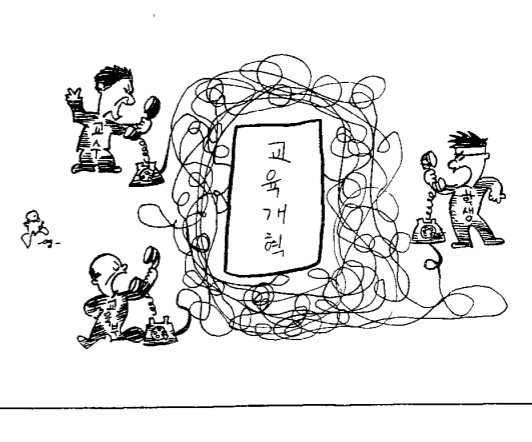
이렇게 학부제 실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대학의 특성화 정책 및 대학총합평가와 관련, 정부의 대학별, 분야별 연구비 차등지원정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학부제 논의가 진행, 확정된 대학들의 학부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교측이 추진계획을 세우고 교수중심의 연구위원회가 설립되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결정과정에서 학생의견 반영에 대한 학교와 학생측의 마찰이 있었으나 공청회등 의견조정 자리를 통해 어느정도 학부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세부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다전공복합학문'을 표방하는 학부제가 그동안 '학과'중심의 대학 활동을 흔들고 학생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문제점과 경쟁적이고 시대대응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학부제에서 학과중심의 폐쇄성에 따른 경쟁적 역치가 아닌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진지한 논의가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곽주영 기자)

### 동국대 평



## 인재가 錦湖를 만들어 가고 錦湖는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경부고속전철 사업 등 사회간접시설에서 난지도 개발계획, 베트남 복합빌딩공사 등 환경·해외사업에 이르기까지 -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해나가는 금호건설이 패기있고 야심찬 미래의 건설주역을 찾습니다.

###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부 문	모집전공	인원	응시자격
기술력	토목 건축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li> <li>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li>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 1966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모집전공 석사학위 소유자</li> <li>-학: 1968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모집전공 학사학위 소유자</li> </ul> </li> </ul>

\* 상기 모집부문(토목, 건축)을 제외한 타 전공자는 그룹 인력관리위원회 (TEL 758-1756)에서 일괄 채용.

2. 전형방법  
가. 1차 : 응시전형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은 개별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당 그룹 소정양식) .....1통  
나. 추천서 (당 그룹 소정양식) .....1통  
다.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0점점 환산) .....1통  
라. 출신대학원 성적증명서 (석사에 한함) .....1통  
마.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1통  
바. 어학 (TOEIC, JPT)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1통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기간 : 1995년 9월 25일 (월) ~ 9월 30일 (토)  
나. 교부처 : 학교 사무실 및 당사 총무부  
다.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이시아나 B/D (주) 금호건설 총무부 (우편번호 : 100-052) 전화 : 758-1824 ~ 6, 8686

5. 기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함.  
다. 서류기재상 허위사실이 있을시 채용을 취소함.  
라. 우편접수는 기간내 도착한 동시우편에 한함.  
마.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치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호건설 총무부 인사팀 (TEL : 758-1824 ~ 6, 8686)에 문의바람.

### 경부고속전철 도심통과노선 문제점 진단

## 문화유적 훼손 불가피

### 경사면, 시민공청회·설문조사 실시

현재 경부고속전철 경주통과노선에 대해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 경주시, 재야단체 및 경주시민 단체간의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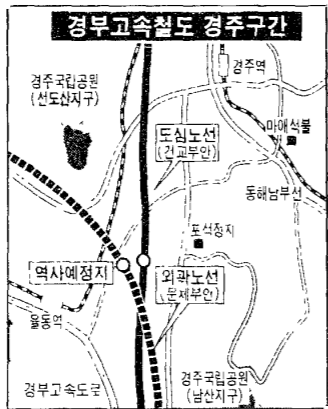
89년 구성된 고속철도 및 신공항 건설추진위원회에서 90년 6월 서울~부산간 기본노선을 확정했다. 그리고 92년 6월 세부노선으로 중간역인 남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를 지정해 총사업비 10조7천4백억원을 들여 92년부터 착공하여 200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고속전철 경주노선은 당초 2개 노선인(경주도심통과노선, 외곽우회노선)을 검토하였으나 도심통과노선을 최종 확정하여 95년 9월 현재 실시계획 완료단계에 들어 있다.

그러나 고속전철 도심통과노선을 지지하는 건교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문체부의 문화재훼손 방지를 위한 의뢰조사에 대해 "전체공정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차량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GEC알스톰사의 계약이탈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선수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17여개 역사학회는 "어떤 노선이든간에 문화재훼손을 최소화할 수 없다"며 경주를 통과하지 않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행하는 노선변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경주시는 지난18일 '노선조정지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문체부측은 노선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측의 경주답사를 통해 도심통과 노선을 고수할 것이다"며 노선조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채택된 도심통과노선은 경주시 통과구간이 32km로 터널구간 6개소, 교량구간 8개소, 토공구간으로 나뉘어지며 노선폭은 20m이다. 이 노선에서 도심통과구간(본교~망산)은 8km로 터널구간(본교~서약동) 35km, 교량구간(서약동~망산) 45km로 되어있어 가시권 범위내만해도 감유신묘(사적21호), 태종무열왕릉(국보25호), 무열왕릉(사적20호) 등 42건의 유적이 소재하고 있어 문화재훼손, 환경오염, 진동, 소음등의 철도공해 유발뿐만아니라 본교의 교육환경파괴와 자연과학관, 문무관, 부속병원인 경주병원과 한방병원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92년도 이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학생회 연대사업부장 김운규군은 "고속전철 통과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문화재 관리가 전적으로 허술한 상태에서 무작정 개발하게 되면 많은 문화유



적의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경주도심통과노선에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지역, 학교와 연대투쟁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건교부와 시의회, 상공회의소는 국제적 관공도시로서의 경주위상을 감안해 보건대 상업성과 경제적 이익, 신도시 개발이라는 장점만을 내세우며, 문화재 훼손 등 여러 손실과 피해가 예상되는 도심통과안을 고집하고 있다.

그동안 입장표명을 유보해 온 경주 YMCA, 경실련, 환경보전을 위한 경주시민회의 모임 등 15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신라문화원에서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연대모임(임시위원장=김백수, 이하 경사면)을 발족, 준비상황보고 및 고속전철 문화재훼손 논쟁에 관한 경주시민 간담회를 개최해 열린 토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YMCA 이재근간사는 일부 상공인의 경주시민 대변인의 모습, 시민공청회를 응하지 않은 경주시민의 이들을 동용한 시장의 독주, 지방언론의 문제해결 촉구등을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본교 이임수(국문학)교수는 "경제적 개발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경주를 살리기 위한 노선안(대구~부산직행안 또는 외곽우회노선)이 채택되어야 하며 경주시민이 여론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사면은 시민의 여론형성을 위해 앞으로 시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계속적인 노선논란에 대해 민자당은 지난 3일 "건교부와 문체부의 노선대립에 있어 절충안을 마련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우회노선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무튼 92년부터 반복과 수정을 거듭하는 노선방정으로 고속전철 시설설계와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송선영기자)



### 한국정치의 혼동 그 원인과 배경

## 구정치세력아닌 21세기·통일 정치세력 등장 위한 진통 국민적 비전 제시하는 이념·내용 담보돼야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6·27지자체 선거가 끝나자 각 정치세력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선거에서 김영삼정권과 민자당에 대한 국민들의 의외가 드러나자, 김대중씨가 대권 4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에따라 민주당은 새정치 국민회의와의 밀착관계를 청산하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새로운 3김시대 등장에 저항하는 정치세력들이 민주당 전류파와 정치개혁 시민연합 등 만민합계 등장하고 있다. 이집에 박찬종씨 등 몇몇이 주장하긴 했지만 세력을 얻지 못했던 3김시대, 세대교체의 목소리가 이제 세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현실이 혼란스럽다 보니, 한국정치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 언론사를 중심으로 대국민여론조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각언론사의 대국민여론조사도 한국정치의 내일을 명확히 밝혀주지 보다는 또하나의 견해를 덧붙이는 것이 되어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한국정치의 예측 불가능성,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크게는 한반도가 처한 오늘날의 상황과 함께 한 시대가 가고 또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90년대 들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며 20세기 전반을 지배한 냉전이 물러갔다. 그에따라 전세계는 화해 협력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냉전의 먹구름이 어느곳보다 짙게 드리운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변화가 시간적으로 늦어져 90년대 중반이 들어와서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냉전이 끝나고 각국에서는 냉전시대의 정치적 유물이 서서히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소련과 동구권은 체제 자체가 무너져 내렸으며, 이와 다른편인 서구에서는 냉전의 흔적을 이루던 현실정치에 대한 총체적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2백년 가까이 미국사회를 지배해 온 건보와 보수의 양당 체제가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페르와 파행들 제 3의 세력이 양측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동구권의 몰락이후 보수, 또는 극우진영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이들의 추악한 부패 시습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민들은

이제 자신이 표를 던진 세력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등 어느한 곳도 안정된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에서는 어떨까? 94년 10월의 북미회담과 북-미간화해는 한반도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냉전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부 정치적인 변화는 그 먹구름의 두께만큼이나 더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더이상 분단이 가져다준 보수양당 독재체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를 지령해 주던 분단이데올로기(반공이데올로기)는 힘을 잃어 버렸다. 국민들은 생활의 변화와 전망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색깔과 안보를 전제로 한 안정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분단이 독재가 만들어준(독재가 기생하듯, 반대를 통해 성장했던 기간에)정치세력들이 지역주의의 양상한 물결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시대변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인 측면이 시간적인 측면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다시말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씨의 정치적이자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씨가 집권하고 있을 2년과 그후 나머지 무사람중 1인이 혹 시라도 집권해 영향력을 발휘할 시간을 합하면 7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 이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시간적 현실이다. 이 짧은 시간과는 반대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3김씨의 정치적 영향력은 한국의 정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 생명이 다하기전에 위력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3김의 재등장은 3김시대의 종언이 가까워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김시대 종언의 조짐은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3김집권과 세대교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고 있다. 이전에 박찬종씨가 3김 타파를 외쳤고, 소수의 사람들이 3김타파를 주장했지만 세력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세력을 얻고 있다 그들은 3김이후 시대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며, 때로는 협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3김에 대한 반사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시말해 국민적 비전을 제시하는 이념과 내용이 없는 한 국민들은 이들에게 정치를 내맡기지 않는 것을 것이다. 오히려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이같은 정서는 뚜렷이 드러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아마도 향후 10년 가까이 한국정치의 미래가 불투명 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한 시간과 공간, 즉 혼란의 시대를 넘어 새

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좀더 있어야 할 듯 하다. 3김으로 대표되는 구정치세력의 반사체로서가 아니라 통일과 21세기의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와 정치세력을 등장시키기 위한 진통, 이것이 지금 한국정치가 겪고 있는 혼란의 배경이자 이유이다.

### 이철상

(전국 연합 정책 위원회)

### 동약로

"한의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한약사제도 도입하라", "공중보건 현의사제도와 한의학적 접근 의료보험 실시하라"

지난 21일 있었던 한의대 파업결의 집회에서의 의견이다. 92년 양·한방 의료행위 논쟁에서 비롯된 한약학과 설치문제 타결하기 위해 한의대 학우들은 계속적인 집회를 여는 한편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독자성을 인정하는 한약학과 설치안 채택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지난 20일 투표자 75.7%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간 한의대는 이날(21일)파업의 집회를 열어 교내와 상건동 민자당사에 이르는 대국민 홍보를 펼칠 예정이었으나 전경들에 의한 도로봉쇄 등으로 경대교에서 더이상의 시위진행을 포기한 채 구호만을 외치다 교내로 돌아와 조별토론과 상황인식을 공유한 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상황 파업과 문제점인식, 보건복지부의 월권남용 등 대 국민 홍보를 위한 이번 시위를 폭력시위로 간주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담

### 홀로서기



국의 사안의 중차대성을 잘 모르는 무신경한 처사가 아니라"며 한약우는 흥분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학우와 병행 이용 시민, 성건동 일대 주민들은 도로봉쇄와 전경 투입으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일로 저러나"는 한 아줌마의

말에 "한약학과를 설치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이라는 학우의 대답에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잘살지"라고 답연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우는 "양·한방간 의견차에서 비롯된 한약학과 설치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올바른 중재역할과 전 국민의 정확한 시각과 판단 조정 역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한약학과가 설치되어도 우리에게 는 커다란 이득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전 한의학도를 위해 투쟁한다"며 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무원칙한 행정에 명들어가는 한의학을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려는 이들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볼때는 언제쯤이 될까. (송선영 기자)

21세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 변함없이 계속됩니다-효성바스프



### 효성그룹

21세기의 종합화학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효성바스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 더욱 앞선 기술과 연구 개발력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미래를 가꾸어 나갈

보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기업

효성바스프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효성 그룹 회사설명회 개최

일시 : 9월 28일 (목) P.M. 1:30~3:30

장소 : 동국관 L 101

**BASF** 曉星바스프(株)  
HYOSUNG BASF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미포구 공덕동 450 TEL (02)707-6000(대)  
TELEX STYRCK K22200/Mapo P O BOX 256/FAX (02)714-9370

기획시리즈 - 다시한번 동국발전을 생각하다 ②

# 재단 인적·물적구조 혁신으로 동국발전

## 효율적인 학사관리·경영기법 도입 통한 질적 변화 꾀해야

### 기획시리즈

다시한번 동국발전을 생각하다

I. 동국의 어제와 오늘

II. 산적한 문제해결의 첫걸음

III. 대약진의 과업과 전망

#### 학교가 변하고 있다

조경공사, 각종 창물 교체공사,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교정을 새단장 하는가 하면 학부제, 계열별 신입생 모집, 졸업이수 학점 하향조정, 복수전공·전과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화려한 번신을 꾀하고 있는 학교의 움직임 속에 동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무언인지 모를 무거운 그림자는 동국인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가져온 동국인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수성이나 폐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사 행정에 있어 공개성의 미흡이나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의 미비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 이면에는 동국에 이미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인맥과 파벌간의 반복과 질서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정당성을 부여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지금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갈등의 양상도 이렇게 보면 재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재단이 과거 수십년동안 올 바른 모습으로 동국발전의 확고한 견인자가 되자 못하면서, 학내에서는 각종 인맥과 파벌이 형성되어 지금의 동국이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문제, 단초가 대체로 직·간접적으로 학교법인과 교수원들과 유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빈곤 속의 풍요

우리는 흔히 동국대는 동양최고의 재단을 가진 사학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중 토지보유 면적은 국내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최대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예산의 대부분이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등록금 책정문제가 갈등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단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에 기인하는 사안이다.

올해 등록금인상 요인만해도 학술문화관 건설비용과 분당현방병원 건설비용 약 80여억원이 버젓이 들어있다. 재단에서 책임지지 못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자체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구체적인 재원확보의 방안도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못하는 재단을 위해 학생들은 매년 상당부분의 재원을 확보해 주고있는 셈이다. 재단이 학생들을 위해 학교발전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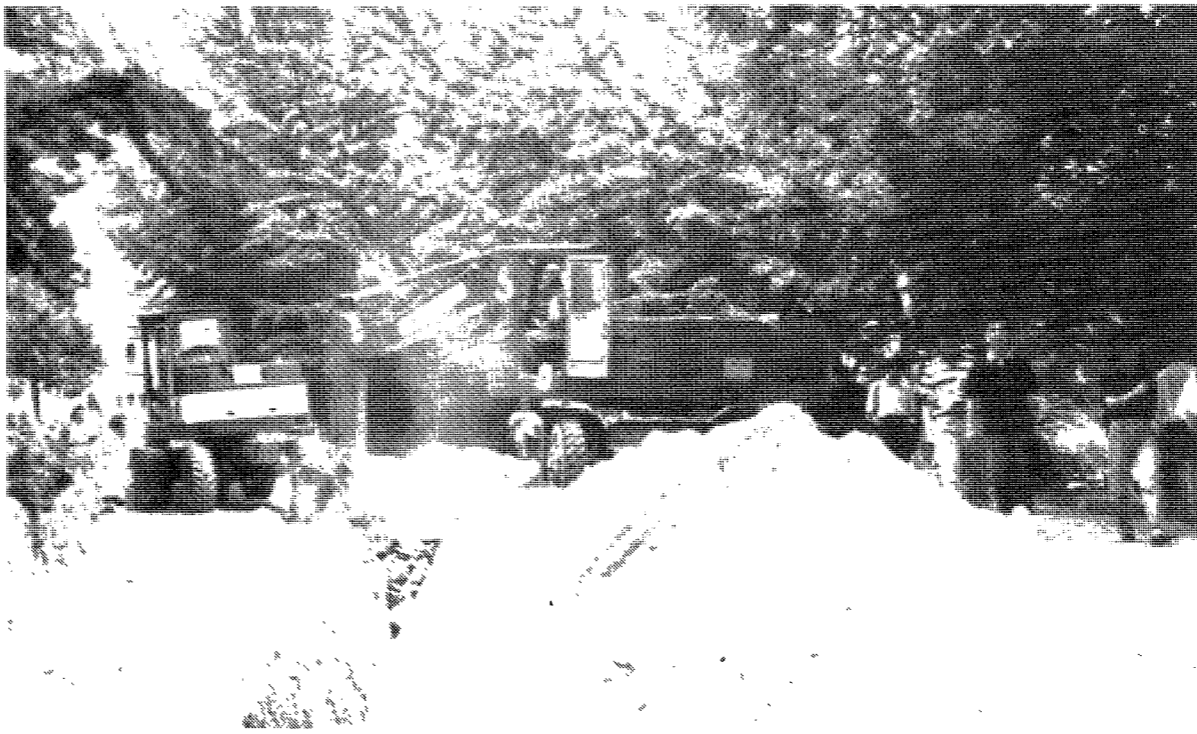
#### 강의실 가기가 무섭다

이렇듯 빈약한 재정현황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문제가 바로 시설과 설비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설·설비는 전적으로 재단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

일마침 학교안의 어떤 건물에서는 그냥 웃어넘기기에 쓸쓸한 일이 있었다. 천정에 붙어 있어야 할 형광등이 떨어져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학생이 부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현재 동국대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학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단 오면 물이 떨어지는 강의실 열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받게 받는 수업, 점심먹을 시간조차 없이 이어지는 강의에서 2명이 같이쓰는 교수연구실, 매년 늘어나는 과를 위한 공간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절대공간이 부족하니 어쩔수 없더라는 식의 논리는 이제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어졌다.

절대공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절대공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임에도 그것보다는 있는것을 합치 없애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동아리 공간문제 역시 학



◇현재 동국은 21세기와 개교 1백주년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외형적 변화에 걸맞는 실질적인 내용성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재단의 재정기여도 확충과 그에 따른 재단학사행정의 쇄신이 시급히 요청된다.

생화관 건립 당시의 학생수와 현재의 학생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절대공간은 단 한층도 늘어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학교행정의 일방통행

“도대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우리과는 내년에 어떻게 되는거야.” “학교가 멋있어 지기는 하는데 이리다 또 내년 등록금 대폭 오르는 거 아니야?”

요즘 학교에는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문은 비단 학생들만이 가지는 의문이 아니다. 어떤교수는 일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학교의 행정이 학교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를 해석해보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학내구성원들을 믿지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건강한 문제의식으로 비판하는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국자들의 경직성과 그들의 존립근거인 학내구성원을 도외시하는 권위주의에서 발원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경직성은 학내에 뿌리깊은 인맥·파벌의 풍토와 더해져 부신의 풍조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잘못된 비판이 있을수도 있고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올바른 문제의식은 수렴하고, 잘못된 비판은 논리적 반박으로 이해시키면서 전구성원의 합의속에 일을 추진한다면 일의 추진력은 배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 바라직한 교원임용

우수한 교수의 확보는 바로 학교의 수준과 일치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타대학들은 교수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전 타대학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수채용과정의 비리는 이미 그 도를 지나쳐 교수사회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학교도 매년 교수채용 과정에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어왔던 것으로 비춰볼때 고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특히 동국의 뿌리깊은 병폐인 인맥·파벌속의 교수채용은 동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것이다. 특히 재단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의 말쑥이 발생하기도 했던 몇몇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수 밖에 없다.

#### 학풍쇄신과 교육의 질

요즘 계열별 신입생 모집이나 야간강좌 파산설이나 하는 문제로 학내가 어수선하다. 겉으로 보기에 이 문제의 발단은 발전

적 학문구조의 조정이나 평가나 정부시책에 따라가거나 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전에 교육재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렸다.

발전적 학문구조의 조정은 막대한 재원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테면 지금의 학과개념 속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막대한 교육시설투자가 필요하다. 또 절대공간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중심의 교원양성과 우수교원확보를 통한 동국의 학풍쇄신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문제해결의 열쇠는 재단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의 모든 학내문제 의해결은 학내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반성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재단의 재정기여와 학원경영의 철저성에서 답을 찾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던 재단 인적구조의 문제와 물적 토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적 구조의 혁신과 물적토대의 마련만이 21세기와 개교 1백주년을 바라보는 동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취재부)

### 뜻깊은 만남

#### “너나 잘해라”

수년 전 어느 유명 교수가 김대중, 김영삼, 김홍필 씨 이른바 ‘3김’을 향해 낚시나 가라고 칼람을 써서 한동안 낚시꾼을 유행시켰었다. 그리고 그후 그 유명교수는 광고롭게도 정치권에 뛰어들어 스타일을 구건채 자기가 말했던대로 이번에는 스스로 낚시나 가야할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다.



윤 청 광

3김중 한 사람은 함량을 의심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두김씨는 역시 함량이 미달인 야당당수로 있는데 ‘3김’에게 낚시나 가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옛날의 교수는 3김이 지배하는 정치권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이것참 가엾다고 해야 할까 고소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

정쟁시대에 조선인으로 광양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중 보좌관 부귀영화와 영달을 핑계채 옛당수로 번신하여 인생무상을 체험했던 한국현대대학교의 거봉 효봉스님은 법정 고은씨의 스승이기도 하였는데 그 분이 낚시 수장은 일화 가운데 한가지가 오늘의 우리에게 뜻깊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

효봉스님이 통영의 조그마한 암자에서 6·25피난시절을 보내며 젊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계실때의 일이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으레히 시비와 질투와 함달과 고자질이 있게 마련인지라 젊은 수행자들이 효봉스님께 찾아와서 다른 수행자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일이 더러 있었다.

“스님, 아무게 수좌는 늦잠을 잔디다.” “스님, 아무게 수좌는 담배를 피운디다”

효봉스님은 가지가지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젊은 수행자의 고자질을 달없이 듣고 계시다가 “할말을 다 했느냐”고 물으시고는 “예 다 했습니다”하는 대답이 나오기가 무섭게 한발씩하셨다.

“너나 잘해라!”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이른바 나이가 아직젊고 똑똑하다는 젊은세대들이 ‘세대교체’를 외치며 누구누구는 물러가고 쫓겨나고 있다고 울리고 있다. 그 옛날의 어느 교수가 낚시꾼을 펼쳤던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대수국민들이 표로서 ‘잘하는사람을 믿어줄 것이요 그렇지되면 물갈이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방송작가

###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 - 現代

취업학원을 다니십니까?  
대학을 다니십니까?



#### 현대가 입사필기시험을 폐지했습니다.

혹시 대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쳐두고 취업수험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현대에는 취업학원 졸업자 보다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한 건전한 사고의 젊음을 원합니다.

대학생활을 충실히 했다면 걱정마십시오.  
진정한 인재발굴을 위해 입사필기시험을 폐지함으로써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통한 객관적평가와 다양한 인성을 통한 주관적평가로 젊음의 가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입사자대 - 그것은 바로 훌륭한 인격과 잠재능력입니다.

#### 면접 중점평가사항

- 1차-담당 과, 차장급이 무자로 면접(블라인드 인터뷰) 실시
- 2차-서류전형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인성평가 (동아리 활동, 농촌 봉사, 사회 봉사, 외국어, 컴퓨터활용 능력 등)



달 하나 천 경 에

현미경 앞에서



창밖의 파란 하늘에서 가을을 느낀다. 끊임이 계속될 것 같은 무더위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가을이 깊어 갈수록 현미경 램프에서 나오는 따스함이 더욱 다정하게 다가온다.

오늘도 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조직면들을 통하여 위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의 각종 진단을 내리며 슬라이드의 보라색, 분홍색 등의 아름다운 색채에 어김없이 빠져든다. 이럴 때면 슬라이드가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 같기도 하다. 이런 작품은 수술이나 생검을 통해 얻어진 조직을 전문의의 육안 검사를 통해 병소 부위를 선별하고 이를 하루동안 고정한 후 3일간 10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장의 슬라이드가 제작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환자의 임상소견과 더불어 해부병리 전문의와 임상외과의사의 논의를 통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와 예후를 결정하게 된다.

해부병리과의 임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여 병원 직원들조차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 많다. 직역이나 가족중에 생검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그 때야 비로소 최종 진단은 해부병리과를 통해서 내려지며 치료나 예후가 결정되는 것을 경험하고 해부병리과에서 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일이 보통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부병리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일련의 복잡한 제작과정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한번 커트하는 비용보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그러나 암종 등이 조기 진단되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아 완치되는 경우를 잘 보면서 이런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병리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이 가득 해진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베풀어 진다'는 신념으로 평소 질병에 관한 전반적이고 깊은 지식을 쌓아 두려고 노력한다. 충분히 준비하고 또 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현실화 시키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현미경 속의 아름다움에 다시 몰입한다.

김 정 란 의과대 의학과교수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 직업병

진폐증·소음성난청·화학물질중독 가장 많아

고열·한냉·소음·분진작업장등이 유해인자

김 두 희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우리들이 생활하려면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데, 직업병이라니 건강 한 생활 목적에 대한 모순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예방만 잘 한다면 걱정할 것 없다.

막상 예방을 하려면 지금까지의 농사짓던 것과 같은 관념적인 방법만으로는 잘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제정(1962)하고 또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별도로 제정 공포(1980)하였다. 나아가서 그 관리규칙을 만들어 실천하게 하고 또 감독관을 두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강제적인 감독을 받기 이전에 노사가 서로 그 규칙을 잘 이해하고 지키기를 생활화하는 것은 중요

한 일이다. 만약 조금 귀찮다고 해서 법률로까지 제정한 예방책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직업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직업병은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난치병들이다.

직업병의 종류는 많다.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한 작업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면 역시 머리 정해놓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위험성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때 직업병 발생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중 유해인자 50여가지를 우선 정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생각할 수 있는 주요 직업병을 들 어본다. 고열작업장에서는 열사병, 한냉작업장에서는 동상, 전리방사선 취급작업장에서는 백혈병, 이싱기압

하 작업환경에서는 감압병, 소음작업환경에서는 난청, 분진작업장에서는 진폐증(분진의 종류에 따라 병세가 달라 나타나기 때문에 병명도 달리 부르지만) 그리고 중금속에 의한 중독 특히 납중독, 수은중독, 크롬중독, 비소중독, 황화수소중독, 인산화탄소중독 등이 문제이며, 또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또한 다양하다.

이런 것들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은 진폐증이며 그 다음이 소음성난청이고 세번째가 여러가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인데 이것이 보고되는 수는 보다 적지만 가끔 이 사회를 놀라게 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은 이것을 취급하는 공장 원진 레이온을 파벨로 돌아 넣었으며 모험광동 공장에서 수은중독사건 또한 같다. 더욱이 진폐증은 광산근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요즘

석탄의 경제성 때문에 폐광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그 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 주변 공장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주물공장 등에서는 진폐증 보고가 늘고 있다. 소음성난청은 생활이 편리하도록 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런 주의없이 방치해 두면 심하게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직업병 방지를 위한 관리상태는 대기업일수록 양호하나 중소기업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영세한 기업에서는 더욱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자격이 있어서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가 독립된 업무를 보며 보건교육과 안전수칙에 대한 감독이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 영세한 기업일수록 노사간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근로감독 강화를 대기업위주로 시행했었다는 사실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영세한 기업에 까지 근로감독의 영향을 미치게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다행스러우나 직업병문제를 더이상 정부의 감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근로자 자신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고 그에 대한 주의점을 의려작업에 임해야 한다.

3D(dangerous, difficult, and dirty)의 일터를 피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산업계에서는 큰 폐단이라고 하나 건강을 앞세우는 의미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고로 일터를 마련하려면 3D작업환경을 없애거나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어야만 한다.

우리들이 건강해지려면 안전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직업병을 예방하고 경제성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해방 50주년 기념 심포지엄-'한국 현대문학 50년' (해외의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현단계에선 작가론에 입각해 개념·범주 파악해야

일·중·미·러에 분포한 재외한국인문학연구

감춰진 역사 조명·우리 문화 전달등 성과 높이 평가

해방 50년을 맞이하여 우리 현대문학의 성과를 조명·평가하며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문학의 위상과 과제를 살피는 심포지엄 '한국 현대문학 50년'이 지난 21·22일 대산재단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여기서는 최초로 재외의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고 홍기삼(국문학) 교수의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재외한국인 문학연구는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과거로 인해 발생한 조국이탈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된 논의의 대상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동포의 수가 많고 이민역사에서도 1세기를 넘기고 있는 지역으로 삼고 있다.

또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재외 한국인 문학의 성격이다.

재일 조선인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김석범의 "어떤 말로 썼느냐 보 다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방

향을 향해 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 권력에 강제되고 빈곤에 쫓겨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조선인들은 일본어로 1억 일본인을 매개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 만약 재일한국인이 일제의 폭력을 일어로 써서 그들에게 알렸을 때의 상황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처럼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은 불행한 것이지 부도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어포 문학은 그것이 중국문학이면서 동시에 조선문학이라 생각 하는 것이 동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인듯 하다고 한다. 홍기삼은 여기서 한 문학사의 "다른 민족의 문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품격과 특색을 이루고 있으며...조선족 문학은 중화민족 문학의 조정부분인 동시에 조선민족 정체(整體)문학의 일부"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재일동포의 문학은 먼저 금세기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에서 만들

어진 역사적·사회 문화적 환경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민족을 침략·지배했고, 중국은 조선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도록 했으나 일본은 조선족이 모국어를 지키기 어려운 만큼의 민족차별을 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은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니라는 '반쪽발이 콤플렉스', '경계인 심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현재 이루어진 재외 한국문학의 의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쓰지 못했던 한국의 상황-예를 들면 좌·우익간의 대립, 4·3사건들을 다루어 우리 문학의 풍부화를 이루었고 ▲국내 문학에 자극과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도 서양문화가 가진 만큼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문학의 독특한 성격으로 알 려낼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실생활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고 ▲국내문학의 해외진출에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홍기삼은 재외 한국문학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중(在中)문학은 18세기 초엽부터 지금까지 상황 변화에 따라 문학적 대상은 변했으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재러시아 문학관계에서는 극동조선인의 신화적 세계의 존재가 느껴지며 '조선계 러시아문학'이라는 좁은 평가를 벗어난 작가라 불리는 김이나 불리를 주목하고 있다.

재외동포문학의 정의를 내리는데 모호함과 난해함을 지적한 홍기삼은 현단계에서는 그 기준을 작가론에 두고 개념과 범주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문학의 역동성을 생각하고, 경직된 틀에 맞추어 나누기보다 살아있는 틀을 적용 시킨다면 한국문학을 독특한 우리문학사의 한 범주로 보는 것과 같은 시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을 떠나지만, 조국의 언어와 풍습등을 지켜 노력하며 그런 것들을 작품화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머니의 무릎이 문학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인용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재일동포가 일본인학교를 다니며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작품도 우리 문학사의 독특한 범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로 시도된 연구인지라 심포지엄 현장에서도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질의자뿐만 아니라 청중들의 참여발언요청도 있었던 보기좋은 자리였다.

해외의 한국문학에 대한 개념과 범주 논의라는 것은 해방50주년이 된 현시점에서 우리 문학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작업이 주목된다. (이유리 기자)

문화단신

'95 베니스 영화제 그 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2일까지 리도섬 살라 그란데에서 열린 '95 베니스 영화제 소식.

작년에 이어 황금사자상은 아시아 영화가 차지했는데, 베트남 출신의 젊은 감독 트란 안 흥의 '씨름'이 그것이다.

트란은 62년 베트남 다낭 태생으로 12살때 베트남에서 고향인 해에 유턴으로 떠난 '보트파플'이었다.

93년 첫장편 극영화 '그린파파 야 항기'로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는 그해 칸영화제에서 신인감독에게 주어지는 황금카메라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베트남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은 '그린파파야 항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프랑스 변두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찍었다고.

자전거, 그것으로 품팔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씨름'은 씨름로이기 때문에 호치민시를 마을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 통해 돈과 음식과 일과 딸과 피로에 관해 보여주었다.

은사자상은 호앙 체자로 문태 이 감독의 '신의 연극'과 쥬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별들의 남자'가 공동 수상했다.남우주연상은 '살인자'의 피조 게오르게,여우주연상은 '의사'의 상드린 보네르와 이자벨 위페르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나라 영화는 배운규감독의 '검이나 땅에 화나 백성' 한 편뿐이었다.이 영화는 최근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화의 '새물결'과도 다른 예상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부)

東西食品

아시세이로?

커피를 개운하고 날씬하게 즐기는 법을...

칼로리 21%, 지방 57% 감소

아세요? 프리마 라이트 -  
순식물성 원료에 올리고당을 사용  
기준 제품보다 지방은 57%, 칼로리는  
21% 감소된 새로운 커피크리머입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살려주면서도 깨끗하고 개운한  
맛을 전해주는 프리마 라이트 -  
아제, 크리머는  
하늘색 프리마 라이트예요.

순식물성 저지방 저칼로리 -  
**프리마 라이트**

[유용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 외국어교육원 이용률 감소 1학기 절반수준인 4백명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대·영문학)이용률이 1학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교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각교육실을 사용하려는 학생들의 출입과 비교도, 오디오 테이프의 대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발급되는 대출증이 2학기에는 1학기 신청인원 1천명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4백명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 한 학생은 "홍보 부족, 시청각실 이용시간의 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떨어진 것 같다"며 "너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 실력을 늘리도록 시청각실의 이용이 높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출증은 증명사진 1장, 신청비 3천원만 준비하면 되고 신청비는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구입 등에 사용된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 TOEIC·종합청취 특강 외국어교육원에서 접수

외국어 교육원(원장=김정대·영문학)은 TOEIC과 종합청취 특강을 오는 10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TOEIC특강은 어학실습실(A)에서 TOEIC MASTER와 Grown TOEIC Listening교재로 매주 월~금요일 오후 5~6까지 강연할 계획이다. 종합청취 특강은 동국관(L101)에서 월요일 오후 5~6시, 화요일 금요일은 오후 5~7시까지 3일간 수업을 하고 교재는 아직 미정이다.

수강료는 모두 4만원씩으로 지난 9월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외국어 교육원에서 접수받는다.

### 사범대 전산실 마련 공간부족 등 문제 많아

사범대학(학장=김현규·교육학)은 사범대 전산실을 학관 3층(3309)에 마련했다.

컴퓨터 30대 프린터 3대를 구입해 방중을 기초공사를 끝낸 사범대 전산실은 이번 주 중으로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사범대 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는 "컴퓨터 수가 부족하여 컴퓨터 교양수업이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 학년 정원이 교육학과를 제외하고 모두 40명인데 컴퓨터수는 30대 밖에 없으니 컴퓨터가 더 들어가기전에는 수업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범대 교학과의 한 관계자는 "관리 조교가 정해졌고 공간이 좁아 다시 기물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비상 약간 무리가 있고 또한 컴퓨터를 단체로 구입했기 때문에 '아래호출' 등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이번주에 설치 완료된다해도 즉시 사용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생협건설 준비위원회 구성 구내식당·임대매장 관리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학 공관위)는 지난 12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건설준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구내식당의 정수기 설치, 위탁관리매장 계약의 안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는 공관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교대표1인(기조실장), 교수대표 1인(교수회총무), 직원대표1인, 총학생회 대표1인, 대학원 총학생회대표1인으로 구성되며, 실무는 공관위 사무국장 겸, 회계자문을 위한 외부의 공인회계사 8명이 담당한다.

실무위원회는 공관위 사무국장 겸 학교1인(후생복지계장), 학생회 추천 2인, 대학원총학생회 추천 1인, 노조 사무국장, 위원장 사무조, 공관위 사무국 직원1인으로 구성되며

생협건설의 내용마련과 준비를 하게 된다.

공관위는 지난 18일 다향관과 동국관식당에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정수기를 설치했다.

또한 원래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계약이 계속 연기에 따라 위탁관리매장에 대한 재계약을 시행하며 재계약 만료시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을 한다. 재계약 시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하는 대신 건물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서를 공중한다. 화재보험은 5년을 만기로 하여 만기시까지 이상이 없으면 총계약금의 1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공중을 통해서도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법적 효력 발생이 용이하게 된다.

## 계열별 모집 방안 학생 반발 '보다 심도있는 논의 과정 거쳐야'

학부제 실시를 둘러싸고 학생회에서 반발하는 등 학내 여론이 분분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학내에서 급격히 문제시되고 있는 학부제 문제와 관련 지난 21일 '일문결의대회'를 명진관(A203)에서 가졌다.

각 단과대학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는 현재 학교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96년도 신입생 계열별 모집 계획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공유 및 이후 투쟁방향 결의가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의 무원칙·무대안 △총학생회의 밀어붙이기식의 사업방식 △학문구조의 재조정 차원이 아닌 학교행정의 간섭재정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목적 △교육 사대주의 등의 이유를 들어 신입생 계열별 모집을 반대했다.

다음날인 22일 사범대 학생을 비롯한 각 단과 학생 3백 50여명이 모여 분관, 명진관, 교수회관 앞 등에서 '무원칙한 계열화 모집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가진 후 분관으로 진입해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총장에게 각각 집외서를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지금까지의 계열화와 학문구조 조정에 관하여 논의된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집외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오늘(25일) 정오까지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4시 중강당에서 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답변의 내용에 따라 이후 투쟁방향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종 선전전, 교수·학생 서명운동, 리본달기 등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범대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는 집외서 전달후 학생집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총학생회장 안진우군은 "학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제외한 채 논의된 현재의 무원칙하고 대안없는 학부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또 "공강확보와 교수 채용 등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학부제 시행은 결국 90년 동국 학생들의 분노를 취입양성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부제 실시는 작년 2학기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지난 1학기때 일방적인 방침이라는 해당학과와 반발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그 후 각 단과대학별로 대학발전위원회가 꾸려져 대학별로 자체 검토 논의한 결과 불교대, 이과대, 사범대 등이 학부제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학부제는 학생에게 전공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학생을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게하는 다전공 복합학제"라고 학부제를 설명하며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단과대학에 맡겼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방침

### 행정부서 및 학생회실 직접 분류 배출해야

본교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각 행정부서 및 학생회실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도록 하는 분리수거계획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매립용 쓰레기는 경정색 비닐봉투에 △소각용 쓰레기는 흰색 비닐봉투에 넣어 각 건물로 비치된 쓰레기통에 직접배출하고 △재활용용은 혼합비닐봉투 각 건물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직접배출한다.



◇오랫만이다. 고추야! 농활을 통해 본교생들의 손을 거쳐 제철고추가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고추 이외에도 사과, 마늘, 참기름 등 우리 농산물이 함께 판매되는 이번 행사는 오늘(25일)까지 혜화관 앞에서 진행된다. (취재부)

### 김용기씨 등 도서기증 조선왕조실록의 총 1천여권

대학원 출신 김용기씨, 산업공학과 정년퇴직 김유송교수, 건대 사학과 퇴직교수인 이영무스님이 증양도서관에 책을 기증했다.

지난 5월26일 김용기씨는 조선왕조실록 1집(52권)을 포함해 총 2백 62권을, 김유송교수는 경제학 관련 서적 4백15권을 7월15일 도서관에 기증했다.

또한 건대 사학과 퇴직교수이며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이영무스님은 속장경(1백49권)과 2백58권과 잡지 1백50여권을 도서관에 보내왔다.

### 학생 수첩전시회 28일까지 도서관 앞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는 96년도 학생수첩 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도서관 앞에서 열 예정이다.

수첩전시회에는 5개 가량의 업체가 참여하여 10~15종의 수첩이 전시되며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해 채택된 종류의 수첩으로 10월 확정되고 11월에 제작, 12월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 효성그룹 회사설명회 28일 동국관(L101)

효성그룹 회사설명회가 오는 28일 동국관(L101)에서 열린다.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사설명회는 96년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그룹 계열회사 소개 및 채용정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동연, 전통대회 공간소위원회 구성

동아리연합회(회장=김용욱·화공4)는 전체동아리 대의원대회(이하 전통대회)를 열어 결의안 및 '공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53개 동아리대표자 총 1백83명중 1백22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 소강당에서 실시한 이번 전통대회는 '동학대의 절대공간 부족으로 인한 공간문제'와 '총체적인 학원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동아리연합회는 이번 전통대회를 통해 △연구분과 이전 반대 △동아리 단일안 마련 △학생문화센터에 동아리 공간확보 요구 △동아리 권익을 위한 복지향상 요구 등 4가지 결의안을 제시했다.

한편, 3천 동아리인을 대표하여 학교측과 협상해 나갈 주제로 공간 문제에 대한 상설기구인 '공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연 부회장 김형수, 연구분과장 김시용, 기획부장 김형수, 동국문화회 기획부장 이영순, 언론문화연구회 회장 신재영 등 5인으로 구성된 '공간소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2차 협상을 학교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 회전무대

교육자본주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가르치는 학교의 실질적 형태는 '교육은 일년지대계'?

다름아니라 경기도 교양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등교정지와 결석처리를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데.

아니, 수업료도 내지못해 안타까워 하는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등교정지, 결석처리는 학교행정.

이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본회전무대자 올 "백년지대계는 수단 방법 안가리는 수업료 완벽주의"

차라리 떠나고라

○...졸업을 앞둔 한 학우, 무려 4년이상 보낸 대학생활에 대한 회개가 커 속세를 떠나려 한다고.

그도 그럴것이 학과중심 대학사회의 마지막 세대였던 그는 전통있는 자신의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만, 목학 학부제로 인한 대학개혁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이에 본회전무대자 올, "무책임한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모교도 없는가"

주객전도

○...요즈음 혜화관 뒷편 주차장에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두 주인공이 있어 화제가 되는데.

어엿한 내집에서 쫓겨난 자동차와 어찌어찌해서 불러 비집고 들어온 쓰레기가 그 주인공!

본래 주차공간이었던 혜화관 뒷편이 주차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다고.

이에 한 학우 올 "쓰레기를 변호하는 학교측은 각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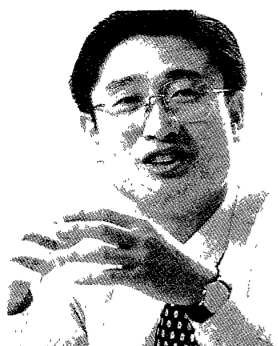
잘 골라!

○...이거 저거, 그러면... 새로생긴 명진가든의 차림표에는 보기만 해도 침뱉어가는 갖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어찌 정작 학생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비숫비숫. 이를 주문해도 없다, 저것도 없다, 어찌나 그것도 안되는데...

이에 한 학우 불벤스리로 주문하는 음식 "그럼~ 되는거 주세요"

### NEW KOLON 2000



“무대는 세계—  
조연은 없습니다.”



###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코오롱의 미래를 펼쳐나갈 주역을 찾습니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 섬유를 개발하여 섬유보급의 기저를 두드리며 출발한 코오롱— 이제 코오롱은 첨단 섬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유통,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한국을 이끌어 갈 뉴리더로서의 용지를 세계로, 미래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만큼 다가와 있는 경제한국의 주역— 코오롱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미래를 드립니다. 젊음을 주십시오.



◇ 동문 연극인들 모인 '베아트리카...'를 보고

**젊은날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그려내  
슬라이드 통해 현대사 주요부분 보여줘  
변모한 세남자·순수한 여자 대비로**

극단 '신화'가 9월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학로 강감술극장에서 창작극 '베아트리카'는 순수의 시대로 떠났다'를 선보인다.

이 연극은 창작극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와 창작극 '듀엣'에 이어 극단 신화가 펼치는 세번째 작품으로 95년 서울연극제 공식초청작품이다.

극단 신화는 본교출신 연극인을 주축으로 모인 극단으로 이번 연극 역시 작가 김태수, 연출자 김영수씨를 비롯하여 임찬호, 신혜수, 김상중, 한범희, 최준용, 이도재씨등 6명의 출연자가 보고 연영과 동문이다. 그중 신혜수동문과 김상중, 한범희 동문은 84학번 입학동기로 그 감회가 남다르다고 한다.

연출자인 김영수동문은 선·후배, 동료들과의 대화중 현재의 직업과 삶에 대해 품고 있는 아픔과 불안감이 젊은 날 자유롭게 꿈꾸던 이상과 당장 생계와 가족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의 부조화와 변질때문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작품구상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70년대말 대학에서 같은 서클을 통해 만나게된 4명의 동창생은 그중 한 여자의 사랑과 노력으로 형제와 같은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하지만 광주민주화 항쟁과 그로인한 휴교령을 계기로 헤어지게 된다. 세월이 흘러 5공화국에 들어서게 되자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대그룹 회장으로 변모한 세명의 남자는 10년이나 연락이 끊긴, 한 때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여동생을 찾는다.

이미 시공에 걸쳐 시인이 된 여동기는 세명의 동창이 옛날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날 자기들이 욕했던 기성세대의 모습인 것을 알고 아픔만을 안은채 다시 자취를 감춘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순수의 시대'라는 제목의 시집에 정리하고 고질병인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

유신시대로부터 문민정부에 이르는 숨겨진 시대살았던 세명의 남자와 한여자의 삶을 통해 인간의 변질과 순수를 대비시키면서 정신보다는 물질에, 남보다는 나를 위

해, 정의보다는 권법과 힘으로 일관하는 요즘의 사회 전반에 빼어난 자성을 촉구하는 이 작품은 12·12사태, 광주민주화운동, 86아시안게임, 6·29선언, 88올림픽, 현 정부의 출범을 담은 48컷의 슬라이드를 통한 장면전환으로 속도감있게 전개된다.

자칫 무겁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작품에 세미유지컬로 꾸민 생일파티, 탈춤, 풍바 등의 이완장치가 삽입되어 있고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신혜수 동문이 2년여의 공백을 깨고 아주 인공 베아트리카 역을 맡아 영화 '백지 아다다'에서 보여줬던 순수한 연기를 선보인다.

공인 이블레를 맡은 이 연극을 본 소감은 한마디로 '감동적'이다.

대본 자체가 요즘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생각해 보게하고 자신의 인생과 견주어 쉽게 동화될 수 있게 하는 폭소와 눈물의 파노라마로 30대 이상의 관객이라면 순수했던 젊은 시절의 회상에 깊게 빠져들게 할 작품이다. (백도나 기자)



◇ 동문 연극인으로 구성된 극단 신화의 세번째 작품 '베아트리카'는...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신혜수 동문이 출연한 95 서울연극제 공식초청작품이다.

▲북한은 새치레에 걸린 집중호우로 국토의 75%가 피해를 입었다. 북한을 방문한 유엔 인도주의 사무국 수해 현황보고에 따르면 피해가구 10만가구, 5백20만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1백19만5천ha의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는 약1백50억달러라고 밝혔다. 또한 수해지구 어린이들은 옥수수수를 먹었는데 그나마 수해로 전기가 끊겨 옥수수수를 절기도 어렵고 수돗물이 오염돼 전염병도 염려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부측이나 여·야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피해보도는 과장된 것'이라든가, "직접지원은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때만 검토하겠다", 한편으로는 "선 피해복구, 후 북한지원"의 사

**베아트리카**  
진정한 친구

실상 대북지원결정을 반대하는 주장들은 총선에 대비한 보수층 확보와 눈치보기에 다름아니다. ▲언론의 과장왜곡보도나 앞다투어 '보수층 끌어들이기'식 보도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주도도 북한수재구호활동이 전개된다고 해서, 일본 쌀에 앞서 우리쌀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중전의 방식처럼 쫓대도 원칙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리고 경솔하게 앞질러 나갈 필요는 없다"고 한 보도나 "북한이 기대하는 재해복구를 위해서도 우성호송환은 빠른 수록 좋다"는 등의 기성 보수언론의 주장은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북한은 지금 어느때보다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쓸데없는 편한 자존심이나 허세, 또는 자신들의 입지감화보다는 진정한 동료애에서 민족적 관점으로 북한을 대하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소)

**영화의 패러독스**

**-'디지털 무비'란 무엇인가**

**배우모습만 입력후 움직임 합성...모든 장면 가능**



**복사 거듭되면 화질 떨어지는 아날로그 보다 발전단계  
'스타워즈' 특수효과 부분만 디지털로 다시 찍을 예정**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요즘 할리우드 상업오락영화계의 기술적 총아는 컴퓨터 그래픽 특수영상 효과의 영화이다.

'주라기 공원', '테미네이터', '포레스트 검프'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그래픽은 영상의 차원을 한단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에 고무받은 나머지 '구미호', '블루 시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사업을 보여준바 있다. 물론 그 전에 있어서는 할리우드의 비교할때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한동안 컴퓨터 그래픽의 열기가 식지는 않을 전망이다.

컴퓨터 그래픽, 뉴 미디어와 더불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디지털 영화라는 용어는 이제 새로운 영화에 대한 개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96년 여름이면 1백% 디지털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센이라는 컴퓨터 입체의 도움을 받아 제작중인 영화 '제네시스'는 실제의 배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영화이다. 물론 배우가 영상

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은 실제 연기한 것이 아니고 배우의 모습만 컴퓨터안에 입력된 후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치 애니메이션을 연상하겠지만 만화가 아니고 실제의 모습을 볼수 있으니 일반 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작과정상의 혁명적 변화는 제작비의 지출을 막고, 종래의 영화적 기법으로 불가능한 모든 창조적인 발상을 자유로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달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이란 용어에 대해 더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방식은 많은 실험을 이미 다 거쳤고 이제 그 사용에 있어서는 다양화만을 기대하면 되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방식은 시스템의 상태를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영상에 있어서 연속적이며 가변적인 기존의 방식을 말한다. VHS시스템, 1인치 시스템, 유메트 시스템, 베타 시스템 등이 모두 아날로그방식이다. 테이프에 화상이 기록되면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번 복사할때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반면 디지털 방식은 불연속적이며 질의 변

화가 없는 방식으로 영상에 있어서는 컴퓨터제어방식에 의해 영상을 기록한다. 컴퓨터 그래픽, CD-ROM, HDTV 등의 뉴미디어가 그에 해당한다.

할리우드에선 컴퓨터 가상현실세계를 응용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안에 곧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과거 SF특수효과 영화의 대명사였던 조지루카스의 '스타워즈' 3부작을 특수효과 부분만 다시 디지털로 작업하여 내보낼 계획이 있다. 영화의 국가경쟁력은 이제 디지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그 판도가 가를나계감 나아가고 있다. 물론 무작정 디지털 기법만 차용한다고 해서 영화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런점에서 그간 만들어진 우리의 컴퓨터 영상 실험은 깊은 반성을 필요로 한다. 소재와 아이디어, 영화의 실감대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정열적인 탐구심이 없애 차가운 메카니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영화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간하는 분별력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 광고비평-

**협변되기·비노쉬되기**

멀리서 파랑새 찾기...  
우리 몇 가진 인물 있어

광고의 3B라 하면 아름다움(Beauty), 아기(Baby), 동물(Beast)을 가리키는데, 이 세가지 요소는 눈에 잘 띄는 특징과 친근함까지 겸비해 많은 광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광고제작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법칙'이라고 한다.

요즘 여성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광고를 보면, 이 3B법칙에서 '아름다움'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비결(?)까지 제시하고 있다.

영화배우인 협변과 비노쉬를 한국의 여성의 지향해야 할 모델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가을 분위기의 립스틱은 협변으로 만들어주며 비노쉬처럼 웃으면 이 계절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광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티파니에서 아침을'로 기억하는 오드리 헵번이나 '뽕네뜨의 연인' '블루'로 잘 알려진 줄리에트 비노쉬는 이제 그녀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분위기 있는 여성의 대명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광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의 타겟으로 삼고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광고력에 판매력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르텐 협변이 될수 있다는 립스틱은 발매 한달만에 54만개가 팔려나갔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아름다움이 아닌 협변되거나 비노쉬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쉽다.

소비자에게 친근한 모델이 나와서 협변과 비노쉬를 흉내내지 않아도 외국의 모델들이 넘쳐나는 광고계에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몇몇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티파니'를 닮은 모습을 보면, 파랑새를 찾아 갖은 고생을 다 겪고도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 보니 파랑새는 바로 집안에 있었다는 그 '파랑새 중후군'을 생각나게 한다. (이유리 기자)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해외연수편

**세계로 가는 엘리트, 함께 가는 LG**

우리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키우는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세계속의 우수량을 실현하는 LG가 매년 전국에서 1천여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전공관련 자격취득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며 세계 곳곳으로 연수도 보내드립니다.

우수인재를 세계로 안내하는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올해로 처음 실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여름방학 동안 180명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동남아 그룹연수 및 각국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LG 산학지원 프로그램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세계를 아는 젊은이가 세계를 이기는 한국을 이끌 수 있습니다. 뜨거운 그 가슴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저희 LG가 힘껏 응원하며 지원하겠습니다.